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1년 3월 14일(주일) 제1335호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See, I am doing a new thing!
Now it springs up; do you not perceive it?
I am making a way in the desert and streams in the wasteland.

함께 부르는 소망의 노래

새 일을 행하리니 (이사야43:19)

3월 16~18일 러브소나타 영상 한일 합동기도회
오후 7시 유튜브 채널, 줌(zoom), 예배당 예배(16일)

한국과 일본의 크리스천들과 교회가 기도로 연합하고, 신앙으로 하나 되는 '러브소나타 영상 한일 합동기도회' (이하 한일 합동기도회)가 한국(서울)과 일본(동경)에서 동시에 개최된다.

'함께 부르는 소망의 노래'를 주제로 막 오르는 한일 합동기도회는 3월 16일(화)부터 18일(목)까지 사흘 동안 오후 7시 온라인(유튜브, 줌) 실시간으로 진행된다. 3월 16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3월 17~18일 동경 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된다. 한국 성도들은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한국어), 일본 성도들은 러브소나타 유튜브 채널(일본어), 일본 교회와 러브소나타 협력교회, 비전교회 목회자는 온라인(Zoom)으로 참가하면 된다. 3월 16일 서울에서 진행되는 한일 합동기도회에는 예배당 예배로도 참가할 수 있다.

이번 한일 합동기도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과 한일 양국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한국과 일본의 크리스천들과 교회들이 기도로 연합하는 은혜의 자리이다. 3월 16

일 이재훈 담임목사 '회개', 3월 17일 시미즈 쇼조 목사(다카이시성서교회) '치유와 회복', 3월 18일 나카데 마키오 목사(구마모토나사렛교회) '연합과 부흥'을 주제로 메시지를 전한다.

게스트는 송솔나무(플루트 연주자), 김영미 권사(소프라노), 배재철(테너), 나가사와 다카후미 목사(찬양사역자) 등이다.

나가사와 다카후미 목사(가나안 프레이즈처치, 러브소나타 가스펠나이트 담당)는 "이번 한일 합동기도회에서 한일 양국 교

회와 크리스천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뤄나가기로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일본 복음화를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듣고 응답하신다"면서 "이번 한일 합동기도회에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참가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02-3215-3717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내가 주님을 못 박았습니다”

한국 교회 사순절 회개기도회 3월 22일~27일

고난주간 새벽기도회 '생명을 위한 고난' 3월 29일~4월 3일

부활절(4월 4일)을 앞두고 2주 동안(3월 22일~4월 3일) 아주 특별한 새벽기도회가 열린다. 3월 22일(월)부터 27일(토)까지 '한국 교회 사순절 회개기도회', 3월 29일(월)부터 4월 3일(토)까지 고난주간 새벽기도회 '생명을 위한 고난'이 이어진다. 오전 6시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과 CGNTV로 생중계된다. 코로나19 방역수칙에서 허용하는 인원은 온누리교회 국내 10개 캠퍼스 본당에서 참가할 수 있다.

CGNTV가 주관하는 한국 교회 사순절 회개기도회는 '내가 주님을

못 박았습니다'를 주제로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목회자들이 대거 참가한다. 3월 22일 홍정길 목사(남서울은혜교회 원로), 송길원 목사(하이패밀리 대표), 23일 박은조 목사(은혜샘물교회), 박노훈 목사(신촌성결교회), 24일 정주채 목사(향상교회 원로), 화종부 목사(남서울교회), 25일 유병국 선교사, 김승욱 목사(할렐루야교회), 26일 정근두 목사(울산교회 원로), 최성은 목사(지구촌교회), 27일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 원로), 이재훈 담임목사가 각각 설교와 사회를 맡는다. 주제는

'내가 주님을 못 박았습니다'이다.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열리는 고난주간 새벽기도회 '생명을 위한 고난'에는 한국로잔위원회와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낙태반대 및 생명수호운동) 사역자들이 메시지를 선포할 예정이다. 3월 29일 박상은 박사(샘병원장), 30일 김현철 목사(사단법인 프로라이프 설립), 31일 이종락 목사(베이비박스 주사랑공동체교회), 4월 1일 이봉화 대표(행동하는 프로라이프 상임대표), 2일과 3일 이재훈 담임목사가 설교한다.

/ 정현주 기자

사회선교부 '선한울타리사역' 시작

양육시설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프로그램

사회선교부에서 아주 뜻 깊은 사역을 시작했다. 양육시설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프로그램 '선한울타리' 사역이다.

보호종료아동이란 만 18세 이후 양육시설(보육원, 그룹홈,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가 종료되어 시설을 퇴소하게 된 이들을 가리킨다. 선한울타리사역은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종합적인 자립지원사역이다. 주거지원(울타리), 멘토링, 신앙훈련, 자립훈련 등을 통해 보호종료아동이 사회에 건강하게 적응하고 자립하도록 돕는다.

지난 3월 7일, 용산구 보광동에 마련된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울타리

에서 선한울타리사역 첫 예배를 드렸다. 최주관 장로의 기도, 신기섭 목사의 메시지, 중보기도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신기섭 목사(제이홈 담당)는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울타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기도가 가득한 집,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져서 이름 그대로 선한 울타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축복했다. 오창화 집사(제이홈 팀장)는 "선한울타리사역이 온누리교회를 넘어서 한국 교회로 확대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02-3215-3434, 3436

/ 정현주 기자

온누리와 함께 90일의 기적

‘90일의 기적’ 이 선물한 또 하나의 기적

김우호, 박영정, 강민경 성도가 경험하고 있는 변화

‘90일의 기적’이 선물한 또 하나의 기적이 있다. 90일의 기적 새벽기도회와 성경일독에 참가하고 있는 성도들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는 긍정적인 변화가 그것이다. 어떤 성도는 성경을 읽으면서 애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감나게 느끼고 있고, 어떤 성도는 이제는 넘어서고 상처받아도 훌훌 털고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겼다고 간증했다. 또 어떤 성도는 난생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무척 기쁘고 행복하다고 고백했다.

김우호 집사(웅산공동체)는 90일의 기적에 참가하면서 성경일독을 처음으로 완주할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크다.

“부끄럽지만 저는 지금까지 성경일독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 번 도전했는데 중도에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90일의 기적 성경일독은 조금 다릅니다.”

김우호 집사가 하루 두 시간 성경읽기에 푹 빠져있는 이유가 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실감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매일 성경을 읽고 들으니 성경의 맥이 잡히고, 말씀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더라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생생하게 느껴지더라고요. 특히 선지서를 통해 받는 은혜가 큼니다. 왜 예루살렘 성전 파괴 전후로 그토록 많은 선지자들이 애타게 대언을 하였는지, 선지자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이 그려집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엎드리는 역사가 반복되고, 그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심정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 마음과 사랑을 고스란히 느끼면서 성경일독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정 성도(신용산공동체)는 90일의 기적 새벽기도회와 성경일독에 참가하면서 몸과 마음의 회복력이 한층 강해지고 있다.

“처음에는 90일이 너무 길어서 신청할 엄두가 안 났습니다. 그래도 ‘90일이 끝나면 하나님이 소원을 이뤄주실거야’라는 마음으로 참가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벌써 받고 있습니다.”

박영정 성도가 받고 있다는 하나님의 선물은 말씀의 힘이다. 90일이 지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있다.

“90일의 기적을 하기 전과 지금의 일상은 똑 같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지는 패턴도 똑같고요. 저는 지금도 똑같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넘어지고 상처받아도 훌훌 털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90일의 기적에 참가하면서 하나님께 말씀의 힘을 선물로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달이라는 짧은 시간에 제가 긍정적으로 변한 것 자체가 90일의 기적이 주는 또 다른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90일의 기적이 주는 선물을 온 몸과 마음으로 받고 있는 김우호 집사(위), 박영정 성도(가운데), 강민경 성도(아래).

‘이 좋은 걸 더 일찍 알았더라면’ 강민경 성도의 후회와 다짐

강민경 성도(서초D공동체)는 매일 아침 6시 ‘90일 공동체 성경일독’을 틀고 성경을 읽는다. 강민경 성도는 90일의 기적 성경일독에 참가하면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90일의 기적 성경일독에 참가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습니다. 늘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지 궁금했는데 저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성경 읽기’였습니다. 90일의 기적 성경일독에 참가하면서 영적으로 또렷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강민경 성도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만 해도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를 할 정도로 열심히 다녔다. 그런데 대학입시를 준비하면서부터 교회에 발길을 끊었다.

“부모님 따라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교회에서 사역도 열심히 했는데 성경은 한 번도

읽은 적이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대입시험을 준비하면서 더 이상 교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20년 동안 강민경 성도는 교회와 담을 쌓았다. 아니 등지고 살았다고 표현하는 게 더 적절할 것 같다.

“교회에 나가지 않으면서부터 주말마다 정말 미친 듯이 놀았습니다. 만지도 않으면서 친구들과 관상, 손금, 사주팔자를 보러 다닌 적도 있고요. 이번 90일의 기적 성경일독에서 이사야서를 읽는데 그 시절이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애먼 짓 하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찾아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강민경 성도가 성경 읽어야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확실하고 좋은 방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90일의 기적 성경일독에 참가하면서 지금까지 왜 성경을 읽지 않았는지 정말 많이 후회했습니다. 이 좋은 걸 더 일찍 알았더라면 하루라도 빨리 말씀을 읽었을 텐데 너무 아쉬웠

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말씀을 읽고 실천하며 살았더라면 분명 지금과 다른 삶을 살지 않았을까 생각도 했지만, 지금이라도 알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실천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 정현주, 김영선 기자

90일의 기적 성경일독 ‘한 줄 소감’ (3월 3일~9일)

·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만나면서 에스겔 파수꾼의 사명이 늘 나에게 말을 건다. 너는 그 책임을 잘 감당하고 있느냐고, 주여! 지금 누리는 천국과 맞이할 천국 사이에 끼인 자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저를 긍휼히 여겨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 김숙자 집사(인천 온누리교회)

· “내가 그들에게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 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조금씩 굳어버리고 뻣뻣해진 마음이 주님의 만져주심으로 부드럽고 순결해지기를 원합니다.
/ 김영 권사(여의도공동체)

·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닫힌 모든 것들이 열리는 놀라운 날들이 임하게 하소서.
/ 송란향 성도(관악금천공동체)

·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눠주신 땅의 유산과 성읍의 출입문이 나의 영적유산으로 할당되어 후손까지 끊이지 않고 흘러가는 여호와 삼마가 되게 하소서.
/ 김민자 권사(이수공동체)

· 마음에 우상을 품고 사는 자들은 열매 맺지 못하는 쓸모없는 포도나무가 되어 불에 사라지는 찰감과 같은 무익한 존재가 되고 맙니다. 우상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살아가겠습니다.
/ 조수현 성도(일산공동체)

· 나의 마음 속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고 꾸짖으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더욱 회개와 겸손의 자리로 향하게 하는 말씀 묵상이 되기를.
/ 김성훈 성도(무궁공동체)

· “회개하고 살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사람이 사는 것이다. 주님! 모든 죄에서 돌아서서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지게 하소서!
/ 서원열 순장(경기A공동체)

·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제게 벌을 내리실 거라는 사실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서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벌을 내리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끝까지 저를 포기하지 않으실 거라고 말씀해주신 것 같아 감사합니다.
/ 허예진 자매(대전 온누리교회)

· “그들이 듣든 듣지 않든 너는 내 말을 그들에게 전하여라.” 주를 위해 하는 행동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도 저를 변화시킴을 믿습니다.
/ 윤석권 성도(강남D공동체)

·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 하나님의 미래 계시를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천사 미가엘을 보내 사탄과 싸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심판의 기간이 지나면 또한 회복의 때가 오리니, 두려워 말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히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바라고 소망하며 인내합니다.
/ 김안강 집사(하나공동체)

온누리와 함께 90일의 기적

대한민국 '피(血)' 로회복 프로젝트 '생명나눔의 기적'

세종에서 공주, 파주에서 일산, 서산에서 천안까지

김동욱, 허왕호, 한정갑 성도가 헌혈의 집 찾아 나선 이유

온누리와 함께 '90일의 기적'이 이어지고 있다. 새벽기도회, 성경일독, 대한민국 '피(血)' 로회복 프로젝트 '생명나눔의 기적(이하 생명나눔의 기적)'이 바로 그것이다. 특히 생명나눔의 기적은 교회와 성도들의 자발적인 동참으로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어 칭찬을 듬뿍 받고 있다. 교회의 사회적 역할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생명나눔의 기적은 혈액보유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성도들의 헌혈 참여를 독려하는 캠페인이다. 1월 4일부터 4월 3일까지 90일 동안 이어진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생명나눔의 기적이 시작된 지 벌써 60일을 넘겼다.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간증이 쌓일수록 은혜가 풍성해지고 있다. 이제 생명나눔의 기적에 참여할 수 있는 날이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다.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과 SNS 계정(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는 생명나눔의 기적 마지막 한 달을 은혜로 채워줄 성도들의 귀한 간증이 지금 이 시간에도 끊이지 않고 올라오고 있다. 건강문제로 미루던 헌혈을 용기내서 실천한 성도, 생명나눔의 기적이 진행되는 90일 동안 두 번 이상 헌혈한 성도, 국적과 언어의 장벽을 넘어 한마음으로 헌혈에 동참한 외국인 성도 등 복되고 귀한 간증들이 너무 많다. 그중에서 절로 박수갈채가 나오는 사연이 있다. 헌혈의 집을 찾아 먼 거리를 달려간 성도들의 이야기다. 김동욱 성도(대전 온누리교회)는 세종에서 공주, 허왕호 성도(일산공동체)는 파주에서 일산, 한정갑 성도(서산 온누리교회)는 서산에서 천안까지 달려갔다.

김동욱 성도는 생명나눔의 기적 소식을 듣고 무릎을 쳤다. 교회가 본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돌도 없는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크리스천으로서 세상에 본을 보이고, 공동체 총무로서 지체들에게 모범이 되고자 자발적으로 생명나눔의 기적에 동참했다.

“이제훈 담임목사님께서 새벽기도회 때 생명나눔의 기적을 말씀하시는데 이것보다 좋은 이웃사랑 실천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세상이 교회에 실망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기에 딱 좋은 기회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성도님들과 좋은 기회를 나누려면 제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겠다고요. 그래서 대전 온누리교회 북누리공동체 생명나눔의 기적 스타트를 제가 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다. 김동욱 성도가 거주하는 세종시에는 헌혈의 집이 없기 때문이다. 다행히 근처 공주시에는 헌혈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었다. 세종에서 공주까지 달려갔다.

“헌혈하려고 검색을 했더니 세종시에는 헌혈의 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가까운 대전과 공주 중에서 헌혈할 곳을 찾았더니 공주대학교에 헌혈의 집이 있더라고요. 지역은 달라도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서 바로 달려갔습니다. 차로 15분 정도 거리에 있는데 이



생명나눔의 기적에 참여하기 위해 헌혈의 집을 찾아 나선 김동욱 성도(왼쪽, 대전 온누리교회), 허왕호 성도(가운데, 일산공동체), 한정갑 성도(오른쪽, 서산 온누리교회).

정도 거리면 공동체 다른 성도님들께도 부담 없이 권할 수 있겠더라고요.”

공주까지 가서 헌혈을 마친 김동욱 성도가 곧바로 공동체 순장들이 모여 있는 단체채팅방에 공지를 띄웠다. 이 귀하고 멋진 경험을 혼자만 하기에는 너무 아쉬웠기 때문이다.

“사실 저도 처음 하는 헌혈이라 걱정이 많았는데 막상 헌혈하고 나서는 성도님들과 이 경험을 꼭 나누고 싶어지더라고요. 곧바로 순장 단체채팅방에 생명나눔의 기적에 동참하자는 공지를 남겼습니다. 잠깐의 아픔을 견디면 누군가에게 생명을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가슴 벅찬 기쁨인지 모릅니다. 진작 이 기쁨을 경험했더라면 헌혈을 더 많이 했을텐데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정말 멋지고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더 많은 성도님들이 헌혈의 기쁨을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허왕호 성도는 생명나눔의 기적에 동참하려고 한 시간이 넘는 거리를 달려갔다. 익숙하지 않은 길이라 사람들에게 물어물어 찾아갔다.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 끝까지 순종하는 마음을 놓지 않았다.

“저는 경기도 파주에 살고 있는데 이곳은 말라리아 위험지역이라 헌혈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헌혈의 집도 없고요. 그나마 가까운 곳에 있는 헌혈의 집이 한 시간 정도 떨어진 일산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환승하고, 사람들에게 길을 물어가며 헌혈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중간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헌혈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헌혈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오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헌혈의 집에서 마주친 사람들의 표정이 너무 행복해 보였기 때문이



다. 헌혈을 마치고는 감사하는 마음이 찾아왔다.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면서 온누리교회 홍보도 했다.

“헌혈의 집에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특히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그분들 모두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헌혈의 집을 찾아가는 길에 생겼던 불평하는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고, ‘오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헌혈을 마치고는 정말 뿌듯했고요. 보잘것없는 저의 피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된다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요. 헌혈하러 온 동기를 물어보시는 간호사님께 온누리교회 생명나눔의 기적 프로젝트를 설명하면서 자연스럽게 교회 홍보도 했습니다. 간호사님이 참 훌륭한 교회라고 하시더라고요(웃음).”

허왕호 성도가 생명나눔의 기적에 동참하는 것을 아직도 고민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헌혈을 꼭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저는 사랑부 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지난해 장애인 청년 한 명이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그 청년이 치료를 받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헌혈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과 나에게는 수술이 필요한 순간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피가 간절해질 수 있습니다. 그 안타깝고 속상한 상황을 지금 겪고 있는 누군가를 위해 작은 도움과 섬김을 실천하는 것은 결국 나와 우리 모두를 위한 일입니다.”

한정갑 성도는 아들과 함께 왕복 세 시간 거리를 달려 헌혈의 집을 찾아갔다.

“저도 생명나눔의 기적에 꼭 동참하고 싶은데 서산에는 헌혈의 집이 없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헌혈자가 오는데 그 기간이 오래 남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



는데 아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 헌혈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서산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헌혈의 집이 천안이었는데 집에서 왕복 세 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오랜만에 아들과 데이트 한다는 마음으로 천안 헌혈의 집을 찾아가겠습니다.”

아들과 함께 헌혈을 준비하고, 헌혈의 집을 찾아가고, 헌혈하는 과정이 그렇게 행복할 수 없었다. 거리가 먼 만큼 아들과 더욱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헌혈 낱씨를 잡고 나서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에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헌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요. 헌혈하는 날에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천안 헌혈의 집을 갔습니다. 아들이 고3이라 바쁘고 마음에 여유가 없을 텐데도 아빠와 함께 헌혈하러 가는 모습이 대견하고 고맙더라고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너무 기쁘고 좋았다’고 말하는 아들을 보면서 참 행복했습니다. 생명나눔의 기적에 참가하면서 아들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한정갑 성도는 생명나눔의 기적에 참여하면서 헌혈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다. 헌혈은 크리스천이라면 꼭 해야 할 일이라고 고백했다.

“헌혈에 대해서 한 번도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면 좋은 일 정도라고만 여겼습니다. 그런데 생명나눔의 기적에 참가하면서 헌혈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세상에 전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헌혈은 크리스천이라면 꼭 해야 할 일입니다.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작은 섬김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선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대한민국 **피로회복** 프로젝트

“생명나눔의 기적”

‘90일의 기적’과 함께 90일간 진행되는 ‘생명나눔의 기적’ 헌혈 캠페인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영적 기쁨은 자신을 통해서 다른 영혼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우리의 이기심과 삶을 내려 놓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매우 고통스러운 산고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또 자신을 통해 누군가 구원에 이르게 될 때 그 영혼이 참된 회개에 이르러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경험해야 하기에 이 모든 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 통로가 되는 사람도 고난의 과정과 근심을 겪게 됩니다. 세상의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이 고난 속에서 위로를 얻고, 고통 가운데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이 그 기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인들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고린도인들의 죄악, 부정, 분열, 다툼, 대적 등이 바울의 마음을 얼마나 근심하게 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져서 그들이 온전한 회개에 이르고, 또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보기까지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디도라는 제자를 통해서 자신이 눈물로 쓴 고통스러운 편지를 고린도인들에게 보냈습니다.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사이에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후서는 네 번째 편지입니다. 전해지지 않는 편지가 사이 사이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고린도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얼마간 목회를 하고 바울은 또 다른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고린도교회 교인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첫 번째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전서가 두 번째 편지입니다. 바울이 가장 먼저 썼던 편지에 대한 응답이 왔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바울에 대해서 질문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인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한 바울 나름의 해결책, 생각, 성경적 시각을 전해 줍니다. 우상의 제물에 참여하는 문제, 음행하는 사람의 문제, 결혼의 문제, 다툼과 분열의 문제에 대하여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이 고린도전서입니다. 디모데를 통해서 전해온 소식은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인들의 분열, 다툼, 죄악, 무엇보다 바울을 부인하고 신뢰하지 않으며 공격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곧바로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됩니다.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

다. 고린도는 유럽 쪽입니다. 배를 타고 건너 가면 바로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매우 급한 마음으로 고린도를 방문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두 번째 방문이었는데 매우 고통스러운 방문이었습니다.

바울이 그곳에서 고린도교회 교인들이 외부에서 들어온 거짓된 무리에 의해서 무너지고 있고, 자신을 얼마나 심각하게 공격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엄청난 상처와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과 싸우지 않고 조용히 에베소로 되돌아옵니다. 그리고 편지를 씁니다. 이것이 세 번째 편지입니다.

고통스럽지만, 참된 회개와 구원에 이르는 과정

“나는 큰 환난과 마음의 고통으로 인해 많은 눈물로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이는 여러분을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 대해 넘치는 사랑이 내게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고전 2:4).

바울이 고린도를 두 번째 방문했을 때 멀리 받고 공격받으면서 그들과 관계를 끊어 버리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고린도인들의 옳지 않은 모습을 복음으로 교정해주는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디도라는 제자를 통해서 고린도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쓰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네 번째 편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인들에 대한 근심 때문에 사역이 손에 잡히지 않았었습니다. 에베소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사역의 문이 열렸지만 열매 맺지 못했습니다. 마게도나에서도 환란 가운데 있었었습니다. 그곳에서 드디어 디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 모든 여정이 바울에게 얼마나 큰 근심이였겠습니까? 세상적인 근심이 아닙니다. 고린도인들과 관계를 끊으면 바울의 마음이 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로 하여금 편지를 쓰게 하고, 사람을 보게 하고, 계속 고린도인들에게 권면하게 했습니다.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바울의 노력을 사용하셨고, 그의 기도를 받으셨고, 그의 편지를 읽는 고린도인들이 감동하게 하셨습니다. 그 편지를 들고 간 디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드디어 바울이 기다렸던 디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인들에게 올바른 변화가 일

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감격을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편지로 인해 여러분을 근심하게 했다 할지라도 지금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 편지가 여러분을 잠시 상심하게 했다는 것을 내가 알고 후회하기는 했으나 지금은 내가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근심하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근심으로 회개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한 것이므로 결국 여러분은 아무것도 손해를 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가져오므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근심은 죽음을 가져옵니다”(8~10절).

바울이 디도를 통해 이 편지를 보내는 일은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기분 좋은 말을 하기는 참 쉽습니다. 그러나 기분이 상할 수 있지만 꼭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서 그 말을 꼭 해야 합니다. 때로 그 말이 우리로 하여금 근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근심을 하게 하는 것은 결국 참된 회개에 이르게 하고, 구원에 이르는 과정이기 때문에 회피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공동체로 만날 때도 어쩌면 가면을 쓰고 좋은 모습으로만 만나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쓰는 가면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친구 만날 때 쓰는 가면, 예배드릴 때 쓰는 가면, 집에서 쓰는 가면, 혼자 있을 때 쓰는 가면, 상황마다 가면을 골라서 쓰고 나오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관계가 세상 근심을 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게 한다면 그 순간 기분이 상할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너무 중요한 만남이 됩니다.

세상 근심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바울이 믿었던 진리가 무엇입니까? 서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촉진시켜 주는 것이 새로운 힘(위로, 기쁨)을 얻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세상 근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비교했습니다.

세상 근심은 죽음을 가져오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세상 근심은 죄 자체를 슬퍼하는 게 아닙니다. 죄가 가져온 결과가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손상시켰기 때문에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죄 자체를 미워하고, 자신의 죄를 범했다

는 사실 자체를 슬퍼합니다. 세상의 근심은 자기 자신에게 일어난 나쁜 결과 때문에만 슬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끼치는 나쁜 결과까지 슬퍼합니다. 세상의 근심은 자신의 명예가 훼손된 것에 대하여 분노하고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불명예를 기꺼이 감당하고 책임 있는 행동의 변화를 하게 합니다. 세상의 근심은 에서의 슬픔입니다. 그는 장자의 축복을 가볍게 여겨서 팔족 한 그릇에 팔아넘겼습니다.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 자신의 삶을 내어준 결과 동생에게 속고, 자신의 권리를 잃어버린 것에 분노하고 슬퍼하고 보복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슬픔은 그가 끔찍한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돌이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세상의 근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구별하기 어려운 이유는 비슷한 증상이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근심, 슬픔, 불안, 염려 등의 증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세상의 근심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지를 잘 구별해야 합니다. 세상의 근심은 십자가로 내 쫓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계속 따라가야 합니다. 참된 회개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를 ‘초개인주의 사회’라고 말합니다. 각자의 주장과 권리가 극대화되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죄를 직면하고, 회개로 인도하는 것을 매우 불편하게 여깁니다. 죄를 지적하는 것을 ‘혐오’라는 단어로 해석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기쁜 소식이기 전에 나쁜 소식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받는 은혜 이전에 우리의 죄와 죄인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소식을 포함합니다. 나쁜 소식을 정직하게 대면하지 않으면 복음의 기쁜 소식이 전해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시대에는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치명적인지 정직하게 알려 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인들의 죄를 지적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눈물로 고통스럽게 편지를 써서 전해 주었던 것처럼 정직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주기

“친구의 꾸지람은 진실하나 원수의 입맞춤은 속이는 것이다”(잠 27:6).

오늘 이 시대에는 진실한 친구의 꾸지람이 필요합니다. **<14면에 계속>**

류현모 교수의 '세계관 묵상'



류현모 교수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신은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은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궁극적 질문이다. 유명한 사상가들이 신의 존재를 “믿는다” 혹은 “믿지 않는다”는 결론을 가지고 견해를 표명한다. 대부분의 경우 단편적인 주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것으로 끝나고, 인생의 전반적인 측면에 대해 골고루 논한 사람은 드물다. 비록 논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기록으로 남아있는 경우는 더더욱 드물다. 그런 의미에서 루이스와 프로이트는 기록을 통해 비교할 수 있는 유신론과 무신론의 훌륭한 모델이다.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1856년 5월 6일 오스트리아 프라이베르크에서 유대인 부모의 8남매 중 첫째로 태어났다. 비엔나에서 성장하였고, 비엔나 대학을 우등 졸업하였는데 철학, 동물학, 의학을 전공하였다. 졸업 후 비엔나 대학 종합병원에서 신경정신과를 전공하였다. 그는 근대심리학과 정신질환 상담치료의 뼈대를 세운 사람이다. 제1세대 심리학인 임상심리학의 터전을 쌓았으며 정신분석, 정신치료, 꿈의 해석 등 현대심리학과 정신의학의 개척자이다. 그는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나 어린 시절에 종교를 버렸다. 신은 어린 시절의 아버지가 우리 마음에

투사되어 만들어진 것이라 주장한다. 또 정신질환은 기독교의 과도한 도덕률이 인간을 억압해서 생기는 것으로 성적 억압을 해소함으로써 치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아만드 니콜라이 교수는 하버드 대학의 정신과 교수로서 정신분석 치료의 원조인 프로이트에 대하여 의과대학생과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강의하였다. 프로이트의 명성으로 인해 그의 강의를 많은 학생들이 수강하였다. 그러던 어느 해 몇 명의 기독교 학생들이 무신론적인 프로이트의 주장만을 주제로 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무신론과 유신론의 균형 있는 강의를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는 즉시 그 요구에 응할 수는 없었으나 관심을 가지고 균형을 맞출 사람을 물색하던 중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만나게 된다.

클라이브 스테이플스 루이스는 1898년 아일랜드 벨파스트에서 영국 성공회 가정의 두 형제 중 막내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형제를 기숙학교에 보내거나 특정과목을 튜터에게 보내어 교육받게 한다. 그의 10대와 20대는 하나님을 모르고 북유럽 신화의 공상에 폭 빠져 살았는데 나중에 <나니아 연대기> 저술의 바탕이 된다. 옥스퍼드 대학에 입학하였으나 제1차 세계대전 발발로 입학하기도 전에 참전했다가 부상을 입고 귀국한다. 대학에서는 영문학, 중세, 르네상스 문학을 전공하였다. 30대 초반 옥스퍼드대학의 교수가 되고 밤늦도록 토론하던 친구들의 소개와 체스트턴의 저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에는 영국 국영방송인 BBC를 통해 기독교를 소개하고 변증하는 방송을 진행하면서 그 내용을 정리해 <순전한 기독교>를 출간한다.

프로이트는 루이스보다 43세나 많고 오스트리아에 살았지만 히틀러 치하에서 유대인 박해를 피해 영국으로 망명하였다. 1939년 구강암으로 많은 수술로 고생하다가 안락사를 선택한다. 두 사람이 만났다는 기록은 없다. 그러나 정신과 의사로서 프로이트의 저술을 공부했던 아만드 니콜라이가 루이스의 저서들을 섭렵해 나가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프로이트가 무신론자로서 제기한 질문에 대해 루이스가 기독교적 관점으로 대답하고 그 대답에 대해 다시 묻고 답하는 상당히 많은 주제들을 발견한 것이다. 이 내용들을 강의하고 정리한 것을 출판한 책이 <루이스 vs 프로이트>(원저: The question of God)이다.

이 책에서 니콜라이 교수는 두 거장의 저서로부터 인생의 궁극적인 주제 8개를 도출하였다. 각각의 주제에 대해 프로이트와 루이스가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책에 어떻게 기록으로 남겼으며, 저술 내용과 관련된 그들의 실제 삶은 어떠했는지 비교하였다. 8개의 주제는 2개의 대주제인 ‘무엇을 믿을 것인가?’와 ‘어떻게 살 것인가?’로 나눈다. ‘무엇을 믿을 것인가?’에서는 창조자, 양심, 위대한 변화의 세 가지 주제를 다루었다. ‘어떻게 살 것인가?’에서는 행복, 성, 사랑, 고통, 죽음이라는 다섯 가지 주제를 다루었다.

이 책에서 우리는 무신론과 유신론의 두 거장의 저술, 학술발표, 자서전, 일기, 편지 등 남긴 기록들을 통해 명확히 그들의 생각을 비교해 볼 수 있다. 또한 그들의 인생 여정 가운데 무신론적인 삶의 단면과 유신론적 삶의 단면을 통해 한 사람의 인생에서 신앙의 유무가 삶의 내용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볼 수 있다. 프로이트는 인생의 정점에 있을 때 자기를 존경하고 따르던 사람들이 인생 후반에 자신을 떠나가는 것을 참지 못해 분노했고, 대부분의 사람들과 인간관계가 뒤떨어졌다. 인생의 말년에는 자신의 유일한 즐거움이 지적 작업뿐이라고 하소연하는 편지를 친구에게 보낸다. 회심 전 루이스 역시 너무 내성적이어서 인간관계의 폭이 극히 좁고, 비판적이고, 교만하고, 냉소적이었던 자신을 일기 속에 잘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회심 후에는 친한 친구들이 많이 생겼고, 많은 사람들과 원만하고 행복한 관계 속에서 살았다. 유명해진 후에도 독자들의 편지에 일일이 답하는 등 친절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평가받았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대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의 인생은 결국 어떻게 귀결되는가? 이 책은 그것을 비교해서 보여준다. 회심이라는 BC/AD의 경계를 넘어본 사람은 자신의 내부정보를 통해 전과 후의 차이를 명확하게 비교할 수 있고 간증할 수 있다.

묵상: 당신의 회심 후 생긴 가장 큰 관계의 변화는 무엇이었는가?

크리스천을 위한 성상담

죄의 대가와 회복 그리고 용서

“모태신앙 청년입니다. 제가 큰 죄를 저질러서 사연을 남깁니다. 얼마 전 회사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성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적 유혹을 넘기지 못하고 죄를 지은 후에 회개했지만 부모님과 여자친구에게 너무 미안하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런 제가 용서받을 수 있을지, 여자친구와 결혼할 자격이 있는지 자책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친구들이나 동료들 사이에서 주어지는 압박은 누구도 쉽게 거부하기 어렵다. 청소년 시기 잘 알고 있었던 친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저지르는 것을 보고, “그럴 아이가 아닌데”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다. 친구들의 압력이 크고, 자기는 원하지 않지만 동참하지 않으면 집단에서 소외될 거라는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행동을 취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인간은 집단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시기를 지나면서 집단과 동일시하는 자기가 아니라 ‘진정한 자기’를 만들어 간다. 진정한 자

기를 만들어 가면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자신의 목소리를 분명하게 내는 것이다. 어떠한 선택의 과정에서 “싫어”, “좋아”, “이번에는 함께할 수 없어” 등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책임과 결과’에 대해서도 수용하는 것이 진정한 자기로 성장하는 과정이다. 집단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이 결정하고, 자신이 결과에 책임지는 것이다. 더욱이 신자는 ‘주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라는 경계선이 분명하게 제공된다.

성매매는 매우 큰 잘못이다. 법적, 윤리적, 신앙적으로 잘못을 저질렀다. 본인도 잘 알고 있고, 때문에 자책하고 있다. 이 모든 일에 자신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료들에게 책임을 미뤄서도 안 된다. 술 때문이라고 해서도 안 된다. 성매매가 이루어지기까지 수많은 단계와 순간을 스스로 선택했다. 그리고 지금 그 결과 앞에서 있는 자신을 보게 된다. 더 어려운 것은 앞으로도 동료

들과 함께할 수 있는 회식 기회가 계속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상황에서 “NO”라고 말할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동료들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신앙적 신념을 말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성장하는 과정이다.

여자친구와 결혼할 자격이 있는지 하루하루 자책하는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클지 가늠이 안 된다. 그래서 마음이 아프다. 결혼할 자격에 관한 결정은 결혼을 계획하는 여자친구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이 일에 대해 말할지 말하지 않을지는 본인이 결정해야 할 몫이다. 그 결과까지 책임져야 하는 것도 본인의 몫이다. 중요한 것은 행동의 결과에 대한 쓴 잔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용서를 구할 수 있으면 용서를 구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지만 용서는 단 회성이 아니다. 매우 긴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진정한 회개는 죄짓지 않겠다는 고백과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틀림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 하지만 배상해야 하는 사람에게는 배상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들키지는 않았지만 결혼을 생각하는 여자친구와 신뢰를 깨트렸다는 점을 생각하면서 다음 단계의 행동을 결정했으면 한다. 그럼에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원망과 증오, 멸시, 죽음의 칼로 자신을 찌르지는 않아야 한다. 자기 자신을 안아줘야 할 사람도 바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다.

죄 있는 나, 허물 있는 나를 안아주고 눈물 흘려줘야 할 주체가 자신이다. 자신을 돌보고, 하나님의 용서의 의미를 깨닫고, 죄의 대가와 회복을 경험하는 과정이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



황국복 목사,
김숙경 소장 부부
(두란노 결혼예비학교
부부강사, <그런 당신이
좋다> 저자)

그 보석 같은 청년들을 만났다

하나님 은혜 말고는 표현할 방법이 없다

주얼리 브랜드 ‘토브’ 김권섭 성도

얼어붙은 고용시장, 천정부지 치솟는 집값, 코로나19까지...

이 시대 청년들이 하나같이 “사람 구실 하기 너무 어렵다”면서 우는 소리를 참 많이 한다. 크리스천 청년들은 살기가 더 힘들다. 크리스천답게 모범까지 보여야 하기 때문이다. 크리스천 청년들에게는 대인관계와 직장생활에서 완수해야 하는 숙제가 하나 더 있는 셈이다. 삶과 신앙, 일과 신앙이 조화를 이루는 일이 그만큼 어려운데 말이다. 그런데 삶과 신앙이 조화를 이루는 크리스천 청년들이 있다. 그 보석 같은 청년들을 만났다. 그 세 번째 주인공은 주얼리 브랜드 ‘토브’를 운영하고 있는 김권섭 성도(푸른누리공동체)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면류관, 안식, 오병이어의 기적, 십자가에 박힌 못, 예수님의 무덤...

기독교의 상징을 반지나 목걸이 등 주얼리로 표현하는 브랜드가 있다. 성경적 메시지를 아주 세련되게 디자인해서 기념일, 청혼 등을 앞둔 젊은 크리스천들에게 입소문이 나고 있는 브랜드다. 그 브랜드 이름은 ‘토브 라피스 니제르, G’ (이하 토브)다. 그 귀한 브랜드 운영자가 바로 우리가 찾던 보석 같은 청년이다. 주인공은 대한민국 귀금속 1번가 종로 종묘 돌담길 한편에서 주얼리 브랜드 ‘토브’를 운영하고 있는 김권섭 성도(푸른누리공동체)다.

“‘토브’는 히브리어로 선하다는 뜻입니다. ‘라피스 니제르’는 로마를 세운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란 쌍둥이 형제 로물루스의 무덤 이름이고요. 그 의미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입니다. G는 ‘GOD’으로 하나님을 뜻합니다. 이 의미를 모두 합치면 ‘선한 뜻은 하나님께로 통한다’입니다.”

성경적 디자인과 메시지를 담아낸 주얼리를 제작하는 것만으로도 참신한데, 김권섭 성도의 삶과 신앙까지 인상 깊다. 김권섭 성도는 하나님 은혜 말고는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왔다.

독기가 가득했던 청년

김권섭 성도는 남묘호렌계교를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다.

“청소년기까지 매일 남묘호렌계교 상징 앞에서 기도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과였습니다. 부모님이 열렬한 신자셨거든요. 부모님께서 봉제공장을 운영하셨는데 IMF가 터지면서 집안 사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버지께서는 화병으로 돌아가셨고, 저는 17살 때부터 일을 해야 했습니다. 꿈이 없는 삶을 살았고,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를 싫어했습니다.”

가진 것은 독기밖에 없었다. 그 청년 김권섭을 하나님께서 교회로 인도하셨다. 김권섭 성도는 야구모임에서 만난 동생의 권면으로 양재 온누리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

“그때가 34살이었습니다. 제가 종교를 워낙 싫어하니 야구모임에서 만난 동생이 ‘형 그렇게 기독교를 싫어할 거면 제대로 알고 싫어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하면서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한번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양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을 주얼리에 담고 있는 김권섭 성도(푸른누리공동체).

재 온누리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에서 감정에 호소하지 않는 논리적, 이성적인 설교를 듣고 마음을 빼앗겨버렸어요.”

그 형 덕분에...

설교에 마음을 빼앗기긴 했지만 딱 거기까지였다. 양재 온누리교회 여호수아청년부 새 가족과정을 밟고 있던 김권섭 성도가 더는 교회에 가고 싶지 않았다. 도저히 성경과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새가족과정 순장님께 도저히 교회에 못 가겠다고 연락했습니다. 그런데 순장님께서 무려 1년 반 동안 저를 챙겨주시더라고요. 개인 사업 하느라 정말 바쁜 형이었는데 1주일에 3~4번씩 시간을 내서 저를 만나주셨어요. ‘하나님은 너를 정말 사랑하신다’고 계속 말씀해 주셨고요. 그 관심과 사랑에 어떻게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 형 덕분에 저도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졌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삶이 달라졌다. 꿈 없이 살던 청년에게 하나님의 꿈이 생기고, 가정도 꾸렸다. 김권섭 성도는 온누리교회에 출석하면서 주얼리 개인 브랜드를 만들어야겠다는 비전이 생겼다.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는 새가족과정 순장의 영향도 있었다. 교회에서 아리따

운 아내를 만나 결혼도 했다. 이제부터 모든 것이 잘될 것만 같았는데 어려움이 또 찾아왔다. 주얼리 개인 브랜드를 운영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 주얼리를 제작하는 기술은 탁월했는데 디자인에는 재능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몇 년을 방향을 잃고 헤맸다.

“지금 돌아보면 중구난방인 디자인을 뽑아냈던 것 같습니다. 디자인을 포기하고 이윤이 최대한 많이 남는 상품을 판매하면서 버텼는데 금방 한계가 드러나더라고요. 한동안은 반 지하에서 생활했습니다. 계단 아래에서 아이를 안고 저를 반겨주는 아내를 보면서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교사로서 미래가 창창한 아내였는데 아무것도 없는 저를 선택한 것이 너무 고맙고 미안했거든요.”

설교를 들으면 아이디어가 딱!

3년 전이었다. 김권섭 성도가 주일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문득 성경적 메시지와 이미지를 디자인해야겠다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김권섭 성도가 제작한 주얼리 라인 카보드(면류관), 카나프(안식, 날개), 아하브(십자가에 박힌 못), 오토(예수님의 무덤), 엠에트(십자가) 모두 주일예배 설교를 듣던 중에 영감을 얻었다. “예술가들에게는 영감을 주는 뮤즈가 있다

고 하잖아요? 저는 주일예배에서 영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준 담임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아이디어가 딱! 떠올라요. 설교를 들으면서 메모하고 묵상하다 보면 디자인과 디자인에 담고 싶은 성경적 메시지가 정리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면서 디자인하고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때부터 브랜드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김권섭 성도가 제작한 주얼리를 온라인 위주로 판매하다가 지난해 종묘 옆 돌담길 귀퉁이에 토브 쇼룸을 오픈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이 많지만 그래도 많은 손님들이 토브 쇼룸을 방문하고 있다. 아직은 크리스천 손님들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넌크리스천들에게도 제법 반응이 좋다. 김권섭 성도의 궁극적인 비전은 주얼리 브랜드를 통한 전도다.

“코로나19로 힘들지만 조금씩 숨통이 트이고 있습니다. 주얼리 브랜드 홍보를 많이 하지 않았는데 저희 브랜드를 찾는 분들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브랜드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제품을 단순히 소비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메시지를 알고 신앙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변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요즘 기독교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성도들의 행태가 싫은 거지 하나님의 메시지 자체를 싫어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기독교 브랜드가 어떤 것인지 몸소 보여주고 있는 이삭 토스트 김하영 대표님처럼 저도 크리스천다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독기만 가득 차 있던 청년이 예수 만나고 단 10년 만에 몰라보게 달라졌다. 요즘에는 ‘90일의 기적’ 새벽기도회와 성경일독에 푹 빠져 있다.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토브의 미래를 그려가고 있다. 하나님과 김권섭 성도가 함께 만들어가는 토브의 앞날이 기대된다.



인스타그램:
towb_lapisniger
주소: 서울 종로구 서순사길
81 금보빌딩 1층



*블로그 QR코드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신다

1. 입양이 복음이다 2. 행복한 우리집 3. 선한울타리사역

입양이 복음이다!

피는 물보다 진해도 사랑보다 진하지 않다



오창화 집사
(한강공동체, 행동하는
프라이프 공동대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고아와 과부에 대한 사랑과 돌봄의 명령(신 10:18)을 잘 알고 있다. 오늘날 풍요로운 대한민국에 살면서 고아와 과부에 대한 관심이 어디쯤 와 있는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서 얼마나 귀 기울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고 싶다. 특별히 ‘입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나는 넷째 아이를 유산하고 쌍둥이를 입양한 아빠다. 우리 부부는 배로 낳은 자녀(3명)와 가슴으로 낳은 자녀(2명)의 차이를 느낄 수 없다. 우리 가족은 모두 똑같이 사랑받고, 사랑하는 행복한 가정이다. 우리에게 아이들은 친생자와 입양자가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녀이다. 아이들 각자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있고, 오로지 그 차이로 인해 우리 가족은 매일 기쁘게 새로울 수 있다.

우리나라 입양 현황과 문제점

“입양은 기회를 얻는 것이다. 사랑과 보호를 받을 가정, 교육받을 권리, 정상적인 아동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주는 미래가 달린 일이다.”

한국입양홍보회 설립자 스티븐 모리스의 한 말이다. 모든 어린이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의 보호를 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있더라도 보호받을 수 없는 아동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입양은 그 아이들에게 새로운 가정을 찾아주고, 가정이라는 틀에서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서 아동의 정신적,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정이 필요한 아이들(보호대상아동)이 매년 4,500명씩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국내외를 합쳐도 고작 700명 정도만이 입양되고 있다(2019년). 미비한 입양율을 기록하고 있다. 입양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입양정책도 한 몫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입양정책은 뚜렷한 목적의식과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일관된 방향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외부의 자극이나 요구에 따라 임시방편적으로 만들어지고 변화했다. 국외입양 관련 정책은 필요에 따라 전면개방과 축소, 금지 사이를 오가면서 매우 혼란스러운 양상을 보이고 있고, 국내입양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2011년 입양특례법 개정을 하면서 입양에 대한 국가의 관리감독 강화를 명분으로 입양가정과 양부모를 입양아동과 대립적 구도에 놓는 철학이 바탕이 된 법률안이 마련되었다. 그 영향으로 국내입양 환경이 급격하게 악화되었다. 입양 관련 지원 또한



2019년 제이홈 크리스마스 모임.

위축되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베이비박스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아기를 키울 수 없는 부모가 아기를 두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상자이다. 한국에서는 2009년 주사랑공동체교회에서 최초로 만들어졌다. 개정된 입양특례법 시행 이후 베이비박스로 들어오는 아동의 숫자가 2013년 252명까지 폭증했다가 2015년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다. 베이비박스로 들어오는 아동들 중에서 입양된 경우가 12~19% 정도에 불과하다. 60%가 시설로 이동했고, 18% 정도는 원가정(친부모)으로 복귀했다(2020년, 주사랑공동체).

성경에서 말하는 입양 그리고 축복

성경에서는 입양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을까? 구약에서는 입양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없다. 실제로 모세 이후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입양에 관한 제도가 없었고, 입양이 시행되었다는 기록을 찾기 힘들다. 그러나 입양의 의미와 은유적 표현이 등장한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어 그의 집에서 일하던 총복 엘리에셀을 그의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는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입양했거나 혹은 입양하려고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야곱도 요셉의 두 아들을 양자로 받아들였다(창 48:5-6).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내 아들, 내 장자”(출 4:22)라고 말씀하셨고,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어린아이였을 때 내가 그를 사랑했고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호 11:1)며 이스라엘은 아들, 하나님은 아버지라 말하고 있다. 이처럼 구약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입양의 이미지로 설명한다.

신약에 기록된 입양에 대한 설명은 바울을 통해 알 수 있다. 바울은 서신서를 통해 성도가 구원받은 것을 입양으로 설명했다.

“하나님은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셨습니다”(엡 1:5).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약속된

유산을 상속하는 자가 되었다고 말한다(롬 8:17, 갈 4:17).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특별히 돌보신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3년마다 십일조를 모아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셨다(신 14:28-29, 26:12). 떨어지지 않은 곡식과 포도열매를 과부와 고아가 취할 수 있도록 남겨둘 것도 명령하셨다(신 24:19-22). 또한 한 개인의 경건의 수준을 그가 고아와 과부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통해서 판단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사 10:2).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 규정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고아와 과부를 대하는 태도에 중요한 지침이 된다.

그리스도에 의해 입양된 존재인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 입양을 바라보는 시각도 비그리스도인들과 달라야 한다. 입양은 하나님의 명령이므로 존귀한 일이자 경건한 행위이다. 왜냐하면 입양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행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은혜로 입양된 자녀들

부모가 자녀를 낳았지만 조성과 만든 자는 하나님이시다. 부모는 단지 아이를 세상에 내보내는 채널이고, 위탁해 보호하는 청지기일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부모는 입양 부모라고 할 수 있다. 성경은 자녀가 결혼하면 새로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 부모를 떠나야 한다고 가르친다. 부모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이를 낳아서 더 큰 공동체에 내보내는 사람이다. 부모의 진정한 자격은 자녀와의 혈연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부모의 자격과 가장 큰 의무는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키워서 교회공동체와 이 세상에 내보내는 것이다. 비록 자기 몸으로 낳지 않았지만 입양한 자녀 역시 하나님께서 맡기셨다고 믿고, 자녀가 자신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해서 사회로 내보내려고 노력한다면 양부모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모의 본질적

인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입양된 자녀들이다. 한국 교회는 유대 기독교의 혈통주의적 사고와 유교 문화의 영향으로 입양을 꺼려왔다. 무조건적 헌신과 사랑을 동반하는 가족은 반드시 혈연관계만 가능하다는 생각이 오랫동안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언약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다.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갈 3:26).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족으로 입양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았다. 이것이 우리가 사랑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들을 사랑으로 돌봐야 하고, 우리의 자녀로 삼아야 하는 이유다. 피는 물보다 진할지라도 사랑보다는 진할 수 없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사람들이다. 언약과 가정의 핵심이 결코 혈연관계에 있지 않다는 사실, 고아를 특별히 돌보라는 하나님의 명령, 주의 자녀 양육이 부모됨과 결혼의 핵심 소명임을 깊이 새기면서 고아들에게도 동일하게 가정을 제공해주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온누리교회에는 입양운동을 하는 사역팀이 있다. 사회선교부 입양사역팀 제이홈(J Home)이다. 제이홈은 이 땅의 고아들을 가슴에 품고 친자녀로 입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양육하는 고귀한 사역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릴 지체들을 찾고 있다. 난임문제로 갈등을 겪는 부부, 입양과 위탁사역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제이홈 사역에 동참할 수 있다. 제이홈은 입양가정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입양에 관심 있는 가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제이홈 사역이 온누리교회를 넘어 한국의 모든 교회에 퍼지기를 소망한다. 한국 교회들이 고아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입양이란 단어가 친숙해지기를 바란다. 입양된 아이들이 우리 주변에 가득 차는 날이 오기를 기도한다. 입양이 곧 복음이기 때문이다.

문의: 사회선교부 02-3215-34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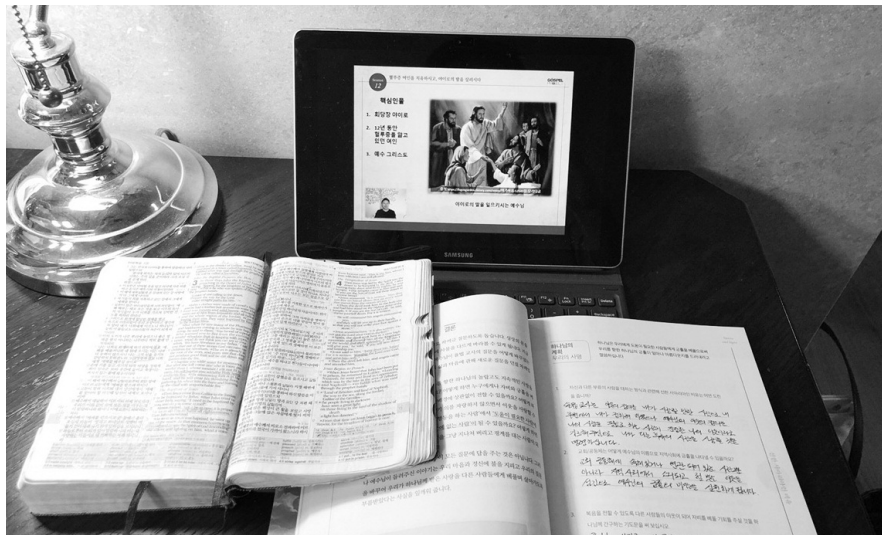
코로나19, '말씀'으로 함께 극복하고 있습니다

가스펠프로젝트 신약2 비유와 기적

3년이라는 시간은 긴 듯하면서도 지나고 보면 참 짧은 것 같다. 최근 나의 삶에서 3년이라는 시간이 짧은지 긴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생겼다. 미국에서의 생활 3년과 귀국해서 3년은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기도 무척이나 바쁜 시간이었다. 길게만 생각되었던 시간들이 정신없이 지나갔다. 나에게 순식간에 지나간 이 3년이라는 단위의 시간이 예수님에게는 다르게 흘러간 것 같다.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3년은 어마어마한 기간이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평생을 바쳐도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안에 모두 들어있다. 그 3년을 통해 인류의 역사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 구원이라는 엄청난 사건이 이 시간 안에 농축되어 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떨어져 있던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고, 다시 천국 백성으로 불러주신 놀라운 역사가 3년 안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공생애 기간 동안 쉬지 않고 이어진 예수님의 말씀사역과 치유사역의 치열한 밀도 속에서 지쳐버린 예수님의 육신은 풍랑 속 배 밑바닥에서 곤하게 잠들어 버릴 정도의 고단함으로 표현되어 있다. 단기간 정말 많은 사역을 감당하셔야 했던 예수님은 말씀 속에 천국의



김지형 성도(동대문중앙광동교회)가 가스펠프로젝트 강의를 들으며 “천국의 비밀을 알게됐다”고 고백했다.

비밀도 농축시켜 두셨다.

가스펠프로젝트 신약2 비유와 기적 과정에서 농축된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 말씀 안에 숨겨진 예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된 것이 정말 큰 은혜다. 내가 알고 있던 복음서의 비유들은 어릴 적 다녔던 주일학교에서 배운 평면적인 스토리 전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나에게서는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들이 고대 근동 문화에 용해되어 있는 각종 신화 속

“일어나 나아오라!”

이야기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신원석 목사님이 들려주시는 자세한 설명을 들으면서 사복음서에 들어있는 천국의 비밀을 찾아 나설 수 있게 되었다. 사복음서에 각기 다른 순서와 표현들로 소개된 비유와 기적의 배경, 맥락, 숨겨진 의미들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2 비유와 기적 강의를 들 때마다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은 감격을

맛보았다. 그렇게 완성된 퍼즐이 다시금 뜯겨져서 변해서 다니엘서의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날아와 신상을 부수듯이 내 마음을 향해 날아왔다. 가스펠프로젝트 신약2 비유와 기적 강의 들으면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의 현실이 되었다.

나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열매가 아니라 나의 열매를 맺으려고 했던 마음 받을 가진 사람이었다. 용서를 모르는 무자비한 종이였다. 또 강도 만나 피흘리는 사람을 비켜서 서둘러 성전에 올라간 레위인이었으며, 세리를 비웃으면서 스스로 겸손한 척 기도하던 바리새인이었다. 또한 나는 유산을 탐하던 탐자였고, 주인의 재산을 탐하던 악한 포도원 지기였다. 그런 나를 위해 예수님은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바꾸시고 나의 죄를 씻어주셨다. 십자가에서 찢긴 살로 하늘의 만나를 만들어서 나의 주림을 채워주셨다. 사탄에 사로잡혀 부끄러움도 모르고 미쳐 날뛰다가 결국 낙망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불결한 죄 가운데 쓰러져 있는 나를 구하려고 예수님이 풍랑을 뚫고 물 위를 걸어서 오셨다. 그리고 내 손을 잡고 선포하셨다.

“일어나 나아오라!”

/ 김지형 성도(동대문중앙광동교회)

코로나19, '이주민'과 함께 극복하고 있습니다

안산 스타트리협동조합

스타트리협동조합이 지난해 11월 28일 개원 예배를 드리고, 12월 2일 정식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스타트리협동조합 바리스타 수업 광고는 인도네시아 식당과 페이스북에 올랐다. 감사하게도 일주일 만에 수강생이 가득찼다. 강릉, 의정부, 포천, 인천 등 멀리서도 걸려오는 문의전화에 놀랐다. 하나님이 불러 모으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일정이 약간 연기됐지만 올해 1월 9일부터 바리스타 수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

바리스타 수업을 앞두고 A학생에게 연락이 왔다. 수업 일정을 문자메시지로 주고받다가 내용을 잘못 이해한 내가 “나는 기독교인이고 우리 예배에 참석해도 좋다”고 제안했다. 예배 동영상까지 보냈는데 알고 보니 A학생은 무슬림이었다. 서로 깜짝 놀랐지만 A학생은 그래도 바리스타 수업을 듣겠다고 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4차례의 수업이 진행되고 얼마 전에 A학생이 커피용품이 필요하다면서 스타트리협동조합을 찾아왔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나눴다. 우리는 A학생에게 위로를 전하면서 친구가 되어주고 싶다고 했다. A학생이 얼마 뒤 인도네시아어예배에 참석했다. 지금 A학생은 금



스타트리협동조합에서 바리스타 교육을 받는 이주민들.

정적으로 예수님을 수용하고 사랑하고 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주민을 사랑하신다. 이주민을 사랑하시기에 그들에게 예수님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직접 하신다. 스타트리협동조합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바리스타 수업을 통해 이슬람 영혼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고 있다.

스타트리협동조합이 생기기 전에 한 옷을 인도네시아 식당 요리사들에게 나눠줬는데 그들이 스타트리협동조합에 관심을 보였다. 스타트리협동조합을 바리스타와 한국어 교육을 하는 장소라고 소개했더니 요리사들이 매주 화요일에 한국어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다. 지난해 9월 시작한 한국어 수업이 어느덧 5개월이 넘었다. 하나님은 어느 날 인도네

아 한 요리사에게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셨다. 코로나19로 줌(Zoom)으로 수업을 하다가 새해 소원을 나눴다. 나의 소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더욱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수업을 마치고 철수 아저씨(가명)에게 선생님 혹시 크리스천이냐고 묻는 연락이 왔다. 동료 요리사들이 모두 이슬람이어서 티를 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자신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다. 어느 날은 철수 아저씨와 은구 아저씨(가명)만 한국어 수업에 참가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것 같아서 은구 아저씨에게 예수님을 조심스럽게 소개했다. 착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은구 아저씨는 스스로없이 예수님에 대해 듣고 돌아갔다.

하나님께서 스타트리협동조합에 바리스타 수업과 한국어 교육을 받으러 오는 인도네시아 무슬림들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계속 허락하신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한다. 가족의 사랑을 그리워하는 이주민들에게 가족이 되어주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줄 성도들을 기다리고 있다.

문의: 031-491-9650

/ 이경원 선교사(안산 인도네시아어예배)

미안마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군사 쿠데타 실패하고 원상회복될지어다!”

미안마에서 군부 쿠데타를 반대하는 민족적인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미안마 군부는 민간인들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많은 희생자가 나오고 있다. 김포M센터 미안마예배 가정마다 축각을 곤두세우고 애타게 현지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군부의 통신 장악과 제한으로 소식을 듣지 못하고 안타까워하고 있다. 뉴스와 SNS를 통해서 생명을 잃은 이웃들의 소식을 접하면서 미안마 가정들의 속이 타들어 가고 있다.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역사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속히 이 사태가 종결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 뿐이다. 기도만이 최선임을 알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면서 미안마예배 가정들과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다. 평일에는 각자의 위치에서 기도하고, 공장이 쉬는 토요일 오후에는 김포M센터 예배실에 모여 합심해서 부르짖고 있다.

“주여! 미안마 사태를 고발합니다. 잔악무도한 군부의 쿠데타가 실패로 돌아가고 속히 평화가 오기를 기도드립니다. 주여! 목숨을 걸고 군부 쿠데타에 항거하는 미안마 시민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미안마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김포M센터 미안마예배공동체.

다. 주여! 속히,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나서 자유민주정권이 회복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아는 민족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포M센터 미안마예배에 출석 중인 가정들은 미안마 북쪽 국경 지역에 살고 있던 산족, 까친족, 친족, 리수족, 몬족 등 소수민족 난민들이다. 이들은 여러 종교적, 민족적, 정치적 탄압을 피해 말레이시아에 난민으로 살았다. 그러다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

도하시고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심으로 대한민국 김포시 양곡읍에 재정착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미안마 난민가정들을 만나게 하시고, 미안마예배를 세우신 데에는 놀라우신 계획이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

2020년 2월 김포M센터에서 난민 중심의 미안마예배가 창립되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보내 주셨다. 예수님 사랑을 더 생생하게 전할 기회를 주신 것이다. 우리는 한국 사회에 정착하면서 모든 것이 낯설고 생소해서 어려움을 겪는 난민가정들의

생활, 취업, 의료 등 전반적인 필요를 돕고 있다. 그들과 함께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다. 이들이 이 땅에서 잘 정착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의탁하는 강한 영적 군사로 거듭나서 민족 복음화에 앞장서는 날을 기도하며 기다린다. 이들과 함께 한국에 온 가톨릭, 불교 난민가정들도 그동안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의 돌봄을 통해서 관계를 형성하고, 복음을 받아들여 세례를 준비하고 있다. 미안마공동체 예배실이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의 후원으로 아름답게 준비되었다. 더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 미안마공동체 성도 모두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다. 이들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강대상과 커튼을 마련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행동으로 표현했다.

김포M센터 미안마예배는 난민 중심의 예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미안마 이주민 모두를 품고, 미안마 복음화에 앞장설 영적 군사들이 더 많이 준비되도록 기도하고 있다. 이번 미안마 사태가 하나님의 손길로 속히 종식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한다.

/ 최영석 선교사, 김명숙 선교사
(김포M센터 미안마예배공동체)



책 읽어주는 목사

몸의 가치와 하나님의 나라



〈비대면 시대의 ‘새로운’ 교회를 상상하다〉
포스트코로나와 목회연구학회 저
| 대한기독교서회 | 11,000원

비대면 시대를 맞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교회가 운영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와 ‘뉴노멀’을 주제로 다양한 책과 강연이 미래 대처 방향을 다각도로 제시할 뿐만 아니라 변화의 목회현장 앞에서 한국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한 책들이 쏟아지고 있다.

오늘 소개할 책 〈비대면 시대의 ‘새로운’ 교회를 상상하다〉는 장로교단(예장통합과 기장), 감리교단, 성결교단에 속한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한국 교회와 신학이 처한 위기 상황을 해결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포스트코로나와 목회연구학회’를 결성하여 집필한 책이다.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1부), 포스트코로나 시대(2부), 언택트 시대(3부), 뉴노멀 시대(4부)에 나아가야 할 한국 교회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이 제시하는 큰 줄기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본질’이다. 방법은 달라지더라도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 성도를 만나는 방식에서 온라인을 통한 만남의 비중이 증가했지만, 성도를 돌봐야 한다는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 교회에 모이는 공동체라는 본질 역시 달라지지 않는다.

둘째, ‘다양성’이다. 초개대화된 이 사회에서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진리는 변하지 않지만, 진리에 접근하는 방식이 다양해졌다. 요즘은 ‘취향 존중’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취향 존중은 기본이 되었기 때문이다. 다양성 시대는 진리를 고수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무턱대고 따르라고 했던 강압적 시대에서 대화와 존중을 통해 설득하는 시대로 변화한 것이다. 이 시대를 인정하고, 더욱 존중해야 한다. 예수님은 각각의 개인을 존중하는 사역을 하셨다.

이 책을 보완하는 하나의 줄기를 추가하고 싶다. ‘영성’이다. 기술력이 중요해진 시대지

만 인문학 열풍이 더불어 일어나는 까닭은 인문학적 사고력인 ‘리터러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감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은 리터러시를 넘어 ‘디지털 리터러시’가 강조되고 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옳은 정보를 분별하는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 분별력은 영성 훈련을 통해 함양된다. 세상이 복잡성에 휘말려 있을 때 더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 앞에 고요하게 머물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영성의 자리’이다.

분별력을 함양하는 핵심코드인 영성의 중요성을 자각한 비기독교인들은 ‘템플스테이’를 한다든지, 자신의 정체성을 SBNR(Spiritual But Not Religious)이라고 표현한다. 한국 교회는 이들을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영성을 충만히 갖추어야 한다.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변화를 맞이한 이 시대에 더 부지런해야 한다.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기를 바란다. 이 책이 우리에게 “불변하는 본질에 다양하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깊은 영성의 차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관점을 제공해 준다.



이강현 목사
(양지 온누리교회)

이원로 장로가 들려주는 시

반영(半影)

부름과 유혹 사이
빛과 어둠의 경계
삶과 꿈이 섞여 흐릿한
반영 가운데서 살아가지
진실과 거짓을
분별할 지혜를 익히려
그 안에서 길들이는 거리

소망과 욕구 사이
짐승과 사람의 경계
사람과 신 사이
반영 가운데서 허덕이지
어스름 속을 지나는 동안
때를 벗겨 내라는 거리
온전히 되어 보라는 거리



2000선교 ‘온라인 미션컨퍼런스’

선교 체질 개선 및 선교사 재교육, 온·오프라인 아웃리치

2000선교본부가 올해 온누리교회 선교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달 2월 27일 온라인(Zoom) 미션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재훈 담임목사, 김홍주 목사 등 온누리교회 선교리더십들과 선교사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온라인 미션컨퍼런스에서는 올해 온누리교회 선교방향성, 온·오프라인 아웃리치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코로나19로 예배, 구제, 나눔, 선교, 교육이 파편화되고 플랫폼으로 재편되고 있다”면서 “온라인, 미디어, 국내 이주민, 난민 사역에 더욱 집중해야”한다고 권면했다.

김홍주 목사는 “올해를 온누리교회 선교 체질 개선과 선교사 재교육 시간으로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미션컨퍼런스에서 이승배 장로가(2000선교본부) 인사하고 있다.

올해 아웃리치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노규석 목사(온누리M미션)는 “국내 이주민교회와 단체에서 아웃리치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온라인, 소규모

아웃리치를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선교사들과 성도들을 이어주는 애플리케이션 ‘온네트’는 3월 말 공개될 예정이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장로사관학교 개강

4월 10일~10월 16일, 피택장로 47명

2021 장로사관학교가 개강한다. 4월 10일부터 10월 16일까지 진행된 피택장로 47명이 대상이다.

장로사관학교에서는 온누리교회와 Acts29, Upside-down Leadership, 바람직한 장로상, 긍휼의 영성, 그리스도인의 미래 사회변화 대처, 온누리 양육체계, 온누리 사역지 이

해 등의 커리큘럼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장로사관학교를 수료하고 장로고시 등을 거친 피택장로들은 오는 12월 4일(토) 장로장립식을 통해 온누리교회 장로로 장립된다.

한편 오는 3월 20일(토) 피택장로 첫 모임이 열릴 예정이다.

/ 정현주 기자



식수관을 통해 물을 받는 몰도바 뽀가네슈티 주민들.

NGO 더멋진세상 몰도바 식수관 조성

뽀가네슈티 마을 420가구 주민 1,336명 이용

NGO 더멋진세상이 몰도바 뽀가네슈티 마을에 식수관을 조성했다. 덕분에 뽀가네슈티 마을 420가구 주민 1,336명이 깨끗한 식수를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식수관이 연결되면서 마을 주민들끼리 위생교육을 하고, 배관과 계량기 등을 설치하는 등 유익한 연쇄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몰도바는 동유럽에 자리한 극빈국이다. 인구 20%가 하루 2달러 이하로 생활하고 있다. NGO 더멋진세상은 몰도바 지방행정기관과 협력을 통해 봉재, 양재 등 직업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 김영선 기자

보라 통독, 그리는 통독 성경(신약) 2기

두란노바이블칼리지 온라인 세미나

‘보라 통독’이 3월 19일부터 7월 2일까지 16주 동안 진행된다. 보라 통독 세미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쉽고 깊이 있게 읽는 통독 프로그램이다. 성경을 쉽고 깊이 있게 통독하기 원하는 성도와 목회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강의는 이상준 목사(양재 온누리교회)가 한다. 회비는 11만 원이다. 보라 통독 강의는 바이블칼리지 홈페이지에서 주차별로 시청할 수 있다. 온누리교회 등록교인이 수료하면 OBC 2학점이 인정된다. 문의: 02-2078-3279

새롭게 성경을 읽는 맵핑 바이블 ‘그리는 통독 성경(신약) 2기’ 온라인 세미나가 4월 8일부터 5월 27일까지 8주 동안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온라인(Zoom) 실시간으로 진행된다. 황사라 목사(지구촌교회 협동목사)가 이스라엘 갈릴리 지도 익히기, 예루살렘 지도 익히기, 성경 속 성지순례 등을 주제로 강의한다. 회비는 10만 원. 4월 1일까지 등록하면 회비를 2만 원 할인해준다.

문의: 02-2078-3275

두란노서점 서빙고점 할인 이벤트

생명나눔의 기적 참가, ‘퐁당’ 앱 다운로드하면 10% 할인

두란노서점 서빙고점에서 온누리교회 성도들을 위한 할인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대한민국 ‘피(血)로 회복 프로젝트 ‘생명나눔의 기적’ 캠페인(이하 생명나눔의 기적)에 참가하거나 CGNIV가 출시한 기독교 OTT 플랫폼 ‘퐁당(Fondant)’(이하 퐁당) 앱을 다운로드 받은 성도들에게 구입한 제품의 가격을 10% 할인해준다(일부 품목 제외). 할인을 받으려면 한혈증이나 인증사진을 제시하거나 핸드폰에 설치된 퐁당 앱을 두

란노서점 직원에게 보여주면 된다. 생명나눔의 기적 할인 이벤트는 4월 3일까지, 퐁당 할인 이벤트는 3월 한 달 동안 이어진다.

두란노서점 서빙고점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성도들은 전화(02-796-2310)나 문자메시지(010-3229-2310), 온라인(www.duranno.com/store/onnuri)으로 제품을 주문하면 된다. 할인 이벤트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문의: 02-796-2310

‘Why Mission’ 참가자 모집

서빙고 3월 9일, 양재 4월 24일 개강

온누리선교학교 ‘Why Mission(이하 Why Mission)’ 서빙고와 양재 참가자를 모집한다. 서빙고 Why Mission은 3월 9일부터 4월 20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유튜브, 양재 Why Mission은 4월 24일부터 6월 5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8시 유튜브로 진행된다.

Why Mission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영광과 선교, 구약 성경과 선교, 신약 성경과 선교, 세계 선교 역사의 현황, 한국 선교 역사, 타문화 이해, 온누리 선교 현황과 비전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회비는 무료.

문의: 010-9663-3292(서빙고)

010-3652-5896(양재)

두란노아버지학교 본부 156기 참가자 모집

두란노아버지학교 본부 156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3월 27일부터 4월 24일까지 5주 동안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두란노아버지학교 본부 156기에서는 아버지의 영향력, 아버지의 남성,

아버지의 사명, 아버지의 영성, 아버지와 가정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매주 조별 모임도 있다. 회비는 10만 원.

문의: 010-5478-6867

젊은부부학교 51기 참가자 모집

젊은부부학교 51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4월 10일부터 5월 1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젊은부부학교에서는 ‘성경적 결혼관’, ‘자기애로의 여행’, ‘남녀차이와 부부대화’ 등을 주제로 강의가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4월 3일까지 아이스쿨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가정 당 10만 원이다. 3월 30일까지 입금하면 회비를 2만 원을 할인해준다.

문의: 010-6685-0812

온누리전도학교 수강생 모집

온누리전도학교 수강생을 모집한다. 3월 21일부터 5월 30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에 동영상 강의가 업로드 된다. 매주 온라인(Zoom)으로 조별모임도 한다. 온누리전도학교에서는 온누리 5분 전도 최고의 행복 전문, 온누리 5분 전도 최고의 행복 도표그리기, 온누리 5분 전도 최고의 행복 전도지, 상황별 접촉점과 반대질문(1,2,3) 등을 주제로 강의와 조별 나눔이 이어진다. 회비는 1만5천 원(교재, 필독서, 전도지 구매비용 포함).

문의: 010-5219-8707(서빙고)

010-9001-6243(양재)

서빙고 새가족명단

S브릿지 고지현 김소은 김원호 김재훈 박경희 임성주 최서윤	강서 김상희 장두영 조근호	신진호 노원 유동규 윤소영 이현석	이중혁 장병주	정덕수 최연성	김국희 김영미 박창근 안혜선	최인경 최준이
관악금천 김민혜 김인월 김진이 여인평 이광훈	동대문중앙 김미영 송영미	서빙고 성지훈 신동우	성북 노혜은 이은영	영등포구로 김영옥 박진희 오시현 이은주	이수 김옥하	중종로 홍지은
가정사역 정영순	김포	동작 김주연	용산	정구열	이춘 김동현 윤수란 이은주	한강 천보경

<큐티하면 행복해집니다> 독후감



/ 정인에 성도(양재 온누리교회)

큐티스쿨을 수료하면서 읽게 된 <큐티하면 행복해집니다>는 큐티에 대한 해석집 같았다. 하용조 목사님을 직접 뵈 적은 없지만 이 책을 통해 큐티에 대한 목사님의 가르침을 얻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큐티를 통해 교회나 목사를 의지하는 신앙이 아니라 성경과 예수님을 의지하는 신앙 체계를 세워갈 수 있다는 것에 깊게 공감했다. 이 부분은 개척교회인 천정교회 시절부터 목사님과 엄마에게 귀가 따갑게 가르침을 받았던 부분이다. 그러나 그런 인지적인 부분을 넘어서서 큐티를 통해 하나님께 나의 남은 생의 첫 시간을 드린다는, 감정적이기 보다는 의지적이고, 분명한 자기 결단으로 책임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다는 것을 배웠다. 이를 통해 큐티를 안하면 벌을 받거나 더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을 막을지도 모른다는 기복적인 시선에서 벗어나 제대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딸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다.

“큐티란 우리가 피하고 싶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기로 결심하면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진짜 큐티를 배웠다

나에게 십자가는 직장생활이었다. 그런데 이 책에서 하용조 목사님께서 “직장에 남을지 떠날지 여부를 두고 갈팡질팡하면 일을 할 수 없다.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마음으로 일해야 감사와 기쁨이 넘친다”고 말씀하셨다. 내게 너무도 찢림이 있는 말씀이었다. 아직 진로에 대한 기도제목이 있긴 하지만 어느 한 곳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인 만큼 순종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감당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결심을 하고부터는 남들보다 일찍 출근해서 앉아있는 사무실이 나의 기도처소가 될 수 있었다. 7시가 되기 전에 출근하는 상황으로 사무실이 주님과의 교제처소가 될 수 있으니 은혜로 느껴졌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에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도 배웠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제거하고, 상처, 교만, 쓴 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 가장 먼저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응답을 주신다고 해도 순종할 것을 다짐한다. 진짜 큐티가 무엇인지 조금 알게 된 것 같다. 이제 실천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싶다.

갈렙선교학교 수료 간증



/ 진미옥 권사(삼일교회)

나는 온누리교회 성도가 아니다. 노원구에 있는 성도 400여 명 정도의 중형교회에 다니고 있다. 나는 권사 직분을 받아 섬기고 있다.

지난 2010년 열매결에 우리 교회 해외선교위원장을 맡게 되었다. 특별한 비전 없이 교회가 하던 대로 답습해서 일했다. 매달 선교헌금 보내기, 선교사님들의 선교편지를 성도들에게 알리고 기도제목을 중보기도실과 해외선교위원들에게 보내서 기도요청하기, 매년 한 번씩 해외단기선교 나가기 등이 선교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해외단기선교가 막히게 되었다. 코로나19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해외선교는 마냥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남편에게 온누리교회 갈렙선교학교를 소개받고 신청했다. 갈렙선교학교에서 교육받으면서 그동안 선교에 큰 열정과 관심이 없었던 내 모습을 회개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도우면서 선교 열정을 태우고 있는 모습을 보고 크게 감동했다. 언제나 내 일에만 몰두했던 모습이 부끄러웠다.

갈렙선교학교에 참가하면서 현지에서 선교하는 일이 가장 최선의 선교라고 생각했던 나의 좁은 시야가 넓어졌다. 후방에서 하는 선교

나의 선교적 부르심

사들을 위한 다양한 섬김도 선교의 중요한 부분이고, 무엇보다 내가 있는 곳이 가장 중요한 선교지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선교에 대한 정보가 없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갈렙선교학교에서 배운 선교를 알려주고 싶다. 더 많이 알고 싶어하는 성도들에게는 갈렙선교학교를 소개하려 한다.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 한 분이 코로나19에 감염돼 요양 중이다. 중보기도 요청, 치료할 수 있는 병원 탐색, 도와줄 후원자를 소개했는데 이런 섬김도 중요한 선교라는 것을 갈렙선교학교에서 배웠다. 나도 모르게 선교에 참여한 것 같아 기뻐다.

선교에 동참하는 방법은 기도와 후원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제는 갈렙선교학교에서 배운 다양한 선교 방법 중에서 내게 가장 적합한 것을 시도해보려고 한다. 선교사님들을 국내에서 구체적으로 섬기는 일 말이다. 선교사 자녀들에게 역사 지도하기, 음식 대접하기, 온라인으로 해외 선교사님들과 기도제목 나누며 기도하기, 외국인 노동자 섬기기 등 앞으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선교적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고 싶다. 선교의 다양한 방법을 일깨워 준 갈렙선교학교에 감사드리다.

세레간증



/ 임광수 성도(한강공동체)

기쁨과 무한한 행복

초등학교 시절 정말 열심히 교회를 다녔다. 주일학교 선생님께서 집 앞으로 찾아와서 교회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주일에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렸던 것 같다. 주기도문을 외우고, 성경 구절도 외우고, 성경 학교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다녔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교회를 분위기와 친구들이 좋았던 놀이 공간으로 여겼던 것 같다. 짧지도 않고 길지도 않은 6년 정도의 교회생활은 중학교 진학과 함께 끝나 버렸다.

친구와의 약속 때문에 우연히 온누리교회를 방문했다. 처음에는 교회 규모에 놀랐고, 그 다음에는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경건한 모습에 놀랐다. 어렸을 적 교회를 다니기는 했지만 성인이 되어서는 종교를 믿지 않았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을 보는 순간 잊고 살았던 신앙과 믿음에 대한 심한 갈망을 느꼈다. 나의 마음에 강한 믿음이 자라나게 되었다. 교회에 등록해서 정식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성경공부도 하게 되었다. 배워야 할 것들이 엄청 많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굳건했다.

나는 새신자 과정과 양육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했다. 나에게 특별한 기적이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 하나님께서 항상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어렵거나 힘들거나 부탁하고 싶은 것들을 기도하고 있다. 기도응답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과 무한한 행복을 누릴 수 있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평생 함께할 수 있는 가족 같은 동역자들이 생겼다.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성경공부도 하고 있다. 동역자들 덕분에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삶의 방향을 확실하게 정할 수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확신, 성령 충만한 삶과 순종, 하나님 뜻을 따라 사역하는 삶을 살 것을 다짐한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고, 나를 이끌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

젊은부부학교 수료 간증



/ 이준기, 김수진 부부(용산공동체)

새로운 변화가 기대된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다.”

“집안의 어질러짐은 보이고 아내의 마음은 안 보이는 것이다.”

이 두 문장은 젊은부부학교를 진행하는 3주 동안 나를 관통하고 있던 문장이다. 나는 지금까지 아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보지 못하고 나의 기준으로 열심히 했다. 이제는 아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아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사랑을 해보려 한다. 나는 짜증이 많은 편이다. 그러다 보니 내 잘못은 안 보여도 아내의 잘못은 잘 보이고, 필요 없는 지적을 많이 했다. 그러나 이제는 아내의 잘못을 보기보다 아내의 마음을 헤아려 보려 한다.

젊은부부학교를 수강하면서 롤러코스터를 탄 것 같았다.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오르내렸다. 1주차는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시작했다. 우리 부부는 첫날에는 완전히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지 못했다. 어색한 마음이 있었다. 2주차에 진행된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부부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그때 나는 첫 번째 롤러코스터의 수직 낙하를 경험했다. 그동

안 모든 이야기를 터놓고 나누지는 않았지만, 아내의 마음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날 아내가 들려준 이야기는 충격이었다. 내가 그렇게까지 아내의 마음을 몰라주었는지 반성하게 됐다. 우리 부부의 관계를 되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2주차 둘째 날 프로그램에서 우리 부부는 누구보다 열심히 참여하면서 좋은 호흡을 발휘했다. 아내의 뛰어난 운동신경으로 MVP를 수상했다. 우리 둘 사이에 존재했던 긴장감과 어색함이 많이 완화되었다.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읽은 것과 박성덕 소장님의 강의를 들은 것이 나의 태도와 방향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강의 들으면서 우리 부부는 많은 것을 공감하고 나눌 수 있었다. 서로에 대한 희망을 품기 시작했다. 이런 마음과 변화들이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집에 와서 아내와 나눔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 무엇을 지켜갈지, 무엇을 서로에게 요구할지를 정리하고 실천하기로 했다. 우리 부부와 가정에서 이루어질 새로운 변화가 기대된다.

장로칼럼

일본 복음화는 한국 교회의 사명



박성호 장로
(러브소나타 대표장로, 울산공동체)

오랜 직장생활을 마감하고 햇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목회학과정을 시작하게 되었다. 나는 은퇴 전 한국, 일본 등 아시아 시장을 맡아서 두 군데 외국계 회사 사장으로 20년 넘게 근무했었다. 일본에 5년 동안 주재하면서 일반사역자로 동경 온누리교회 청년들을 섬기면서 일본 선교와 복음화에 대한 소명을 갖게되었다.

일본에서 기독교는 오랫동안 배척받고 소외당하는 소수 종교이다. 300여 년에 걸친 기독교 박해로 교회와 성도들이 많은 고통을 받았고 크리스천은 오랫동안 가난하고, 사회에서 소외당하는 계층으로 생각하는 정서가 아직도 남아있다. 실제 일본의 교회들은 대부분 영세하고 자립이 어려운 실정이다. 그런데 온누리교회가 1만 명 가까이 수용하는 도쿄 사이타마 슈퍼아레나를 빌려 대규모 러브소나타 집회를 연다니 담당자들을 설득하는 것도 정말 어려웠다. 사이타마 슈퍼아레나 대관이 결정 나지 않아 동경 온누리교회 리더십들이 진땀을 빼고 동분서주하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다. 고 하용조 목사님이 “피해자인 우리가 먼저 일본을 용서하고 손을 내밀어야 한다”면서 시작했던 러브소나타가 햇수로 어언 15년이 다 되어 간다. 그동안 러브소나타 집회는 일본 전역에서 31차례 열렸다. 처음에는 “러브소나타를 하려는 진의가 뭐냐”, “이런 프로그램이 계속될 수 있겠느냐?”는 일본 교계의 우려가 많았었는데 때

년 러브소나타가 계속되어지자 아젠 신뢰가 많이 쌓였고 열매 또한 많았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2번의 러브소나타 집회 계획이 있었는데 무산됐고 올해 하반기에도 러브소나타 집회가 계획 중이지만 열릴 수 있을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일본 생활을 경험으로 돌켜 보면 말도 안 되는 역사관과 한국관을 가진 일부 극우세력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지난 역사에 대한 가해자로서 한국인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음의 불모지인 일본 선교를 한국 교회에 맡기셨다고 생각한다. 일본은 우리의 가까운 이웃이며 마지막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함께 이루어야 될 동역자이다. 일본 선교는 인내와의 싸움이지만 그 어떤 나라도 경험해 보지않은 영적 부흥이 반드시 일본 땅에서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한다.

제2의 도약을 위해 한일 러브소나타 실행위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있다. 다양한 소통 채널과 콘텐츠 그리고 보다 효율적인 실행을 위한 융합선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다.

오는 3월 16일부터 18일까지 유튜브 라이브와 줌을 통해서 러브소나타 한일 합동 기도회 ‘함께 부르는 소망의 노래’가 열린다. 양국 협력교회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코로나 팬데믹의 종식과 일본 땅 위에 복음의 리바이벌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자리다. 많은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주시기를 바라고 있다. 러브소나타는 일본 복음화의 마중물이다. 지금은 마중물이 끊이지 않기를, 코로나 팬데믹으로 신음하고 있는 일본 교계를 위해 함께 기도해야 할 때다.

문의: 02-3215-3238

권사칼럼

용서와 화해의 시간



김정희 권사
(중종로공동체)

딸이 결혼하기 전에 사위와 딸에게 큰 상처를 줬다. 사위 부모님께서 따로 살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결혼을 반대했다. 그뿐만 아니라 사위에게 폭언을 수없이 하면서 헤어지라고 힘들게 했다. 그럼에도 딸과 사위는 결혼했다. 결혼 전 내가 준 상처로 인해서 사위와 나는 내면의 상처를 가진 관계가 되었다. 7년 동안 참 힘들었다.

2021년이 됐다.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으라’는 말씀으로 새해가 시작됐다. ‘90일의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일독과 새벽기도회, 생명나눔의 기적 등 여러 사역들이 꽃을 피우고 있다. 나는 성경일독에 참여하면서 사위와의 관계를 말씀으로 회복시키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었다. 그날그날 주시는 말씀을 사위에게 메시지로 보냈다. 일주일 정도 말씀 메시지를 보냈는데 별 반응이 없었다. 혹시나 마음에 부담을 주는 일일까 싶어 이틀동안 말씀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다. 그런데 사위에게 메시지가 왔다.

“어머니, 월요일까지만 말씀을 보내주시고 화요일부터는 안 보내주셔서요 매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위의 메시지를 받고 내 마음에 기쁨이 가득 찼다. 그리고 사위를 위한 기도가 터져 나왔다.

“나의 교만을 아시는 주님, 이기적이고 악한 나의 내면의 죄를 용서하소서. 사람을 겉으로 판단하며 재단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사위도 하나님을 닮아 중심을 보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사위에게 맡기신 사역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맡기신 사역을 하나님

의 지혜로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사실 ‘용서와 화해’가 2021년 나의 기도제목이었다. 기도제목을 마음에 품고 말씀을 선포하며 사위에게 90일의 기적 말씀을 보냈는데 그 마음이 닿은 듯했다. 마음이 닿게 하시고 만져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번 설 명절에는 사위 가정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다. 이제껏 하지 못했던 깊은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결혼을 반대했던 이유에 대해 사위에게 이야기하며 용서를 구했다. 사위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던 내 언행을 사과하고 화해했다. 이야기를 마치고는 사위에게 내가 힘들었을 때 힘이 되었던 말씀을 나누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사 41:10).

불안하고 두려울 때마다 붙잡았던 이 말씀을 나누며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아닌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고 간증했다. 늘 나와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고 믿음의 승리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가야 한다고 삶을 나누었다. 그리고 딸과 사위의 가정을 위한 기도를 해주었다. 내 이야기를 가만히 듣던 사위가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는 고백했다. 사위와 용서와 화해의 시간을 보내면서 설을 보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마 6:12).

주님께서 나와 사위의 내면의 상처를 회복시키기로 작정하셨다. 주님께서 내 안에 있는 작은 죄도 기억하게 하시고 죄의 길에서 돌이키게 만드셨다. 상처의 죄에서 건져주시며 생명의 샘으로 인도해주셨다. 내 안에 가득했던 죄를 말끔히 씻어주시며 용서를 구하게 하시고 눈물을 닦아주셨다. 나를 고쳐주신 주님이 우리 가정을 또 새롭게 고쳐주시리라 믿는다.

신앙에세이



전병천 전도사
(마포공동체)

사랑하는 나의 아들 현규와 딸 주희에게. 아빠는 너희들을 진정으로 그리고 아낌없이 사랑한다. 어찌 이런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단다. 너희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어서가 아니라 너희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나에게 큰 기쁨이다. 너희가 어떤 잘못을 해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는 너희를 키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시며,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 부모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내시려고 우리 죄를 대신해 자신의 몸을 내주셨습시다”(갈 1:4).

너희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대신 죽을 수도 있다는 마음이 들기도 하면서 실제로 우리를 위해 인간이 만든 가장 잔인한 형벌인 십자가에서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했단다.

나의 생명보다 존귀한 현규와 주희야. 아무리 부모가 재산이 많다고 해도, 그 재산을 다 준다고 해도 재산은 유한한 것이고 그 재산으로는 잠시 동안의 행복, 잠시 동안의 만족에 불과할 뿐이다. 부모가 주는 복은 잠시 필요한 것을 조달해주는 것뿐이지 1분 후의 고통이나 생명도 지켜줄 수는 없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솔로몬이 모든 것이 허무하고 정말 허무하다고 고백한 것처럼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도 잠깐이고, 영원하지

않으며, 허무한 것이라든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다르단다.

“모든 것의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전 12:13).

진정한 복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내가 네 손을 잡으리라” 혹은 “내가 너를 지켜주고 너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면 인간이 주는 복과는 비교가 안 되는 무한(無限)한 복이요, 영원(永遠)한 복이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얻는 복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어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 너희의 할아버지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에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했고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 섬기셨단다. 나도 할아버지를 본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의

마음으로 섬기기를 소망한다. 너희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의 마음으로 섬기기를 소망한다. 그리고 너희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의 마음으로 섬기를 간절히 바란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의 마음으로 섬겨라.”

이것이 할아버지의 유언이고, 내가 너희에게 남기는 유언이다. 그리고 너희가 너희 자녀들에게 남기는 유언이 되기를 소망한다. 우리가 이 유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의 마음으로 섬길 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이삭에게 주셨던 복을, 야곱에게 주셨던 그 복을 나와 너희들과 너희의 자녀들에게 주실 것이라 믿는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 가문에도 너희 할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를 축원하고 축복한다.



주일강단

(5면에 이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며 범사에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합니다”(엡 4:15).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이르도록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줘야 합니다. 사랑 없이 진실을 말해 주기는 쉽습니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죄 받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진리 없는 사랑만 말해 주는 것도 잘못입니다. 잘못을 지적하지 않으면서 좋은 말만 해 주는 사랑은 절대 변화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회개에 이르지 못합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하고, 결국 참된 회개와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의 만남에서 세상의 근심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이르게 해야 합니다. 바울이 고통스럽지만 고린도교회 교인들에게 사랑 가운데 진리를 주는 영적인 태도를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내가 정죄하려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여러분이 우리 마음에 있어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고전 7:3).

정죄는 올바른 말은 했지만 그들과 하나 되지 못합니다. 바울은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했습니다. 이런 태도가 동일시, 연합입니다. 바울은 정죄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쏟아지는 비난이 있다면 함께 받아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신뢰와 사랑을 계속 표현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 대해 많은 신뢰감을 갖고 있고 여러분을 위해 자랑할 것도 많습니다. 우리의 온갖 환난 가운데서도 내게는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칩니다”(고전 7:4).

“내가 여러분에 대해 디도에게 무슨 자랑한 것이 있다 할 지라도 나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말한 모든 것이 사실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디도에게 한 자랑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14절).

바울이 디도에게 고통스러운 세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그

들에게 신뢰를 전하라고 했고, 고린도인들을 자랑했습니다. 자신을 대적하고 공격하는 상황에 있는 그들에게 신뢰를 표현했습니다. 심부름하는 디도에게 고린도인들을 자랑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디도에게 고린도인들이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 했다면, 디도가 고린도인들을 그 시각으로 봤다면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장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도 장점이 있는 법입니다. 바울은 편지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를 단호하게 지적함과 동시에 그 내용을 전하는 디도에게 고린도인들을 자랑했습니다. 그 자랑처럼 고린도인들이 돌아키고 변화되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올바른 길로 변화시킬 때 정죄와 비판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신뢰, 그들의 장점을 인정해 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인한 회개의 열매

“그러나 낙심한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디도를 돌아오게 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가 돌아온 것뿐만 아니라 그가 여러분에게서 받은 위로로 우리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내게 대해 사모하는 것과 애통해 하는 것과 열심을 내는 것에 대해 그의 보고를 받고 나는 더욱 기뻐했습니다”(6~7절).

바울은 디도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디도가 돌아왔을 때 기뻐했습니다.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전해 온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바울이 사역에 집중하지 못할 정도로 고린도인들의 변화를 기다렸습니다. 바울은 디도의 보고를 통해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참된 회개가 일어났다는 확인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11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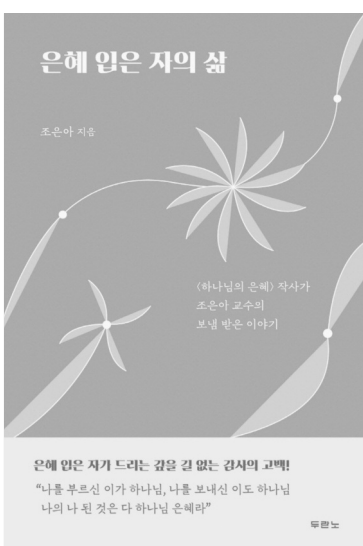
회개의 열매를 표현하는 모습 일곱 가지가 등장합니다. ‘얼마나 간절한가’ 다음에 번역에 빠진 것이 있습니다. 헬라어 단어로 ‘알라’ 인데 이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 이상 더’, ‘게다가’, ‘더욱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more over’입니다. 얼마나 간절한가 다음에 여섯 번이나 더욱이, 게다가, 또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게다가 또 얼마나 두렵게 되었는가를 편지에 써가면서 바울의 감격스러운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한가는 깊은 관심으로 일을 신속하게 이루고자 열망하는 태도입니다. 얼마나 변증하게 하는가는 자신의 잘못됨을 인정하고 용서를 비는 태도입니다. 얼마나 분하게 하는가는 자신의 죄에 대하여 분노하는 마음입니다. 얼마나 두렵게 하는가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모하게 하는가는 바울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열심있게 하는가는 잘못된 것을 고치기를 원하는 열심이고,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는 책임 있는 벌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인한 회개의 열매입니다. 디도를 통해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하는 심부름을 했던 디도도 새 힘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 살아가는 삶이요, 복음 안에 형성된 관계입니다. 세상적인 관계는 만나고 나면 세상의 근심이 가득하게 됩니다. 없던 근심이 생기고, 있던 근심은 더 커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만날수록 세상 근심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됩니다. 회개에 이르게 됩니다. 참된 구원의 삶으로 나가게 됩니다. 우리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를 통하여 얻게 되는 위로, 기쁨, 새 힘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두란노 신간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은혜 입은 자의 삶》
조은아 저 | 두란노 | 11,000원

이 책은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들이 어떤 삶의 태도와 가치관, 소명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도록 도와준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가사만 보아도 흥얼거려지는 찬양 ‘하나님의 은혜’를 작사한 조은아 교수의 첫 번째 책이 나왔다. <은혜 입은 자의 삶>이다.

“은아야, 네가 헌신할 수 있는 것도 다 내 은혜야.”

조은아 선교사가 카자흐스탄으로 파송 받기 며칠 전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 말씀을 듣고 평평 울면서 일기장에 써 내려간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는 고백이 찬양 ‘하나님의 은혜’의 가사가 되었다. 그 가사에 담긴 은혜를 <은혜 입은 자의 삶>에 고스란히 담았다.

<은혜 입은 자의 삶>에서는 은혜 입은 자의 삶에 대한 고민과 인내와 소망을 선교적 관점에서 풀어내고 있다. 또한 조은아 교수가 걸어왔던 길과 그 길에서 만난 하나님을 소개한다.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은혜와 열방을 향한 선교의 소명도 녹여내고 있다.

몸의 가치와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인은 삶으로 이름값을 증명합니다

《내 몸이 성전입니다》
김관선 저 | 두란노 | 12,000원

를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

“그리스도인은 삶으로 이름값을 증명합니다.”

책 표지에 적힌 이 문장이 <내 몸이 성전입니다>의 핵심메시지다. <내 몸이 성전입니다>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몸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귀로는 어떤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지, 눈으로는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 입으로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손으로는 어떤 일을 하고, 발은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등 몸을 기준으로 삼아 그리스도인의 삶을 설명한다.

<내 몸이 성전입니다>에서는 우리 몸이 주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되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을 설명한다. 또한 우리 몸이 성전이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성전이 된 몸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몸으로 시작해서 삶으로 끝나는 이 책의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몸의 가치를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콘텐츠를 보다가
복음에 빠지다

포당



'포당' 앱 다운로드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에서
'포당 Fondant'을 검색하세요



새로운 계절, 새로운 콘텐츠와 함께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에 '포당' 빠져보세요!



순전한 기독교

이재훈 목사 / 총 40편

기독교 최고의 변증서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를 통해
진리를 탐구합니다.



보라통독 성경언박싱

이상준 목사 / 총 30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 숨은 의미를 쉽게 풀어봅니다.

fondant '포당' 문의 02-792-0691



모바일에서 '다모음' 앱 다운받아 간편하게 CGNTV 후원하기
'다모음' 앱 설치 후, CGNTV 후원하기 선택

후원계좌
A R S
후원문의

[하나은행 573-910002-67804]
060-705-0000
02-796-2243